

땅끝 해남 도심 경관 확 바뀐다

도심으로 녹화·정비사업...가로등 설치 아름다운 야간 경관 연출

해남군이 오는 2010년까지 난개발로 망가진 도심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낡은 분수대 등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섬 녹화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남군은 내년 1월까지 해남읍 관문인 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를 위해 1988년에 설치된 분수대를 철거하고, 나무를 식재해 화단으로 조성한다.

분수대의 철거는 여름철 작동을 제외하고는 방지돼 있는데다 시설물이 낡아 관광 해남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 앞 사거리와 진입 삼거리에 도로섬 녹화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각적 이미지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소년 우범지대로 지적돼 온 서립공원도 지난 6월 체육시설과 벤치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전통정자 설치 등 주변 정비 공사를 진행중이며, 내년에는 화장실 개보수 및 소공원들을 조성해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형형색색의 색채를 가미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경관가로등은 올해 초 해남읍 돌고개 먹거리촌과 송지 어불리 선창을 비롯해 읍 시가지 외곽도로 11km 구간에 218개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 경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도심미관을 정비하고 있는 해남군은 앞으로 해남 경찰서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고, 읍 시가지 도로변 공한지와 면 소재지에 주민휴식공간을

겸한 소공원 등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관가로등도 읍·면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등에 104개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통한 깨끗한 시가지 가꾸기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강인석 해남군 지역개발과 경관 조성담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아름다운 해남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생명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전남도, 나주천·구례 서시천 등 정비 사업

나주천과 순천시내 동천, 구례읍내 서시천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하천 재해에 방은 물론 하천 제방과 구조물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와 습지, 산책로 등도 함께 조성된

다. 전남도는 480억원을 투입해 나주천 11km 구간과 순천 동천 7.4km구간, 구례 서시천 10km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 조기 발주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3

개 하천에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이 조성돼 나주·순천시민 등 약 18만명의 도민이 여가를 즐기고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도 해남천에 120억원 을 들여 하상 정비와 함께 수생식물을 심고 상, 하단부에 습지를 만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내년 1월 시작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연장 제동

나주시의회, '특정인 특혜' 의혹 조례 상임위 상정 보류

특혜 논란을 빚었던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에 나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원장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7개 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단 한 곳의 원장이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보육교사나 운전원 등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특정인

을 위한 개정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나주시의회 한 의원은 "교사, 운전기사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데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초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여수나 해남 등 타지의 어린이집 원장 정년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으나 상정이 안 된 만큼 내년초에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사랑의 열매' 조형물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목포간 국도 1호선인 함평군 염다면 송노리 도로변에 벚빛 사일리지를 이용한 사랑의 열매 홍보 조형물이 세워졌다. 이 조형물에는 이웃 사랑 징표인 진홍색 사랑의 열매와 함께 '나눔, 함께해요. 희망 2009 이웃사랑'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신광면번영회 지역 노인 돕기

함평군 신광면번영회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지역노인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신광면번영회 회원 31명은 지난 15일 신광면사무소에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노인 25명에게 쌀 25포대를

전달했다. 또 매년 관내 학생들에게 200여만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신광면번영회는 생활극빈자 4명의 전기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유니폼도 제공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흥 탐라이스단지 국무총리상

전국 최우수 시범단지

장흥 탐라이스단지가 농촌진흥청 주관 '2008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전국 최우수 시범단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42개소의 탐라이스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포장식사, 단지운영상황, 쌀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장흥 탐라이스단지를 올해의 최우수단지로 뽑았다.

장흥 탐라이스 단지는 미관상 흉결이 있는 쌀(일명 금간 쌀, 싸레기 쌀)이나 병해충 피해가 없는 완전미율이 95%이상이고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인 규격 쌀을 생산 출하하고 있다.

특히 탐라이스 전용 RPC에서 도정해 다른 품종에 전혀 섞이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쌀품질 고급화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탐라이스 쌀

장흥 탐라이스단지 김기용(49·관산읍 외동리)회장은 "종자선택부터 수확 및 도정, 출하까지 기술지도를 해준 전남농업기술원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오늘의 영광은 62명의 회원이 합심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신념으로 땀 흘려 이루어 낸 결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김민수(42)씨는 친환경 벼농사 재배 기술 보급 및 탐라이스 단지 지도에 노력해 온 공로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특별 관리해 쌀품질 고급화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광산구 첨단도서관

초등학생 겨울강좌

광산구 첨단도서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겨울강좌를 개설하고 17일부터 선착순 수강생을 모집한다.

첨단도서관은 관내 4학년 이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자소화와 초등영어회화, 어린이 POP 예쁜글씨, 북아트 논술교육 등 4개 강좌를 개설한다.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4주 과정으로 사자소화와 초등 영어회화는 주2회, 어린이 POP 예쁜글씨와 북아트 논술교육은 주 1회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당 20명씩이고, 수강료는 2만원이며 어린이 POP 예쁜글씨와 북아트 논술교육의 경우 별도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062-940-9860)

한편 지난 2006년 11월 개관한 첨단도서관은 어머니 독서교실, 문화강좌, 전시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담양군 인사 투명성 높인다

인사전 승진 후보자 공개

인사비리 등으로 군수가 구속되는 흉역을 치른 담양군이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인사 때마다 승진 후보자 순위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진 후보자들은 인사를 전후한 3~4일간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은 전보시키는 순환근무제가 시행된다.

담양군은 그러나 장기 근무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만큼 행정 지도와 업무 효율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순환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채 등 비정기적인 인사 요인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인사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 한 통합으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남도음식 1번지' 담양 맛집 한권의 책에

郡, '대숲맑은...' 발간

남도 음식 1번지로 손꼽히는 담양군의 소문난 맛집들을 소개한 요리 안내책자(사진)가 발간됐다.

담양군은 최근 유명 맛집과 특색있는 음식점, 음식명인 등을 소개하는 '대숲맑은 담양의 맛집'을 제작했다.

이 책에는 떡갈비와 대동밥, 솥



떡갈비갈비를 비롯해 정갈하고 푸짐한 한정식, 오리요리, 새로운 지역 명물로 부상한 국수 요리 등을 제공하는 대표 음식점 44곳이 수록돼 있다.

또 대나무밭에서만 자라는 죽순과 망태 버섯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음식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음식명인, 신지식인 7명(곳)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담양군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맛과 멋을 즐기는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전국 자치단체와 음식점, 관계 기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Advertisement for '광고점수안내' (Lighting Point Guide) with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중고자동차 전자중매입·판매' (Used Car Electronic Brokerage/Sale) by [주]니콜리움, featuring a car image and contact details.

A grid of various small advertisements for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